朝鮮日報
第二夕刊 七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伊、獨、英、米等各國 芬蘭에武器供給說

飛機、小銃其他를續續提供

【倫敦六日發同盟】蘇聯軍의 芬蘭侵入開始以來 各國의芬蘭에對한 武器供給은 俄然活潑한바잇는데 六日로이터通信社의 外交記者는 芬蘭軍의 使用에 供하려고 五十乃至六十臺의 伊太利機가 이미 헬싱키에到着하엿다는 確報를接受하엿다고 報道하고잇다 右 伊太利機는 獨逸經由로 空輸되는 模樣인데 蘇聯과 盟邦關係에잇는 獨逸도 또한 多數의 체코小銃을 아주 廉價로 芬蘭에 供給하엿다고 傳한다 一方 英國軍需會社도 軍需資材를芬蘭에 輸出하고잇는데 이미 二十五臺의軍用機가 헬싱키로 輸送되엇다고한다 그리고 在米芬蘭人이 祖國에獻納한 多數飛行機가 米人飛行士에依하여 芬蘭에 空輸되게되엇다고한다

로이터通信

芬軍라湖附近서 蘇戰車八台擊破

【헬싱키六日發同盟】芬蘭軍司令部發表=芬軍은 라도가湖附近의 사르미方面에서 蘇聯軍戰車八台를破壞하고 多數의蘇聯兵을 捕虜로하엿다
一、中部카렐리아方面에서는 蘇聯軍戰車六台를 粉碎하고 또蘇聯機一台를擊墜하엿다
一、北方페차모前에서 蘇聯軍野砲二門機關銃四挺을 鹵獲하고 飛行機一機를 擊墜하엿다

芬蘭의最大한힘은 國民의一致團結!

獨立廿二周年記念日 카리오大統領激勵

【헬싱키六日發同盟】蘇聯의進攻으로 그獨立이危殆하게된 芬蘭은 奇異하게도 六日獨立 第二十二周年記念日을마지하엿는바 카리오大統領은 이날 라디오를通하여 如左한要旨의演說을하여 芬蘭國民을激勵하엿다
芬蘭이가진 最大의힘은 國民의一致團結이다 現在蘇聯의 所行을보면 蘇聯이企圖하고잇는것은 레닌그라드市의 安全이아니라 芬蘭의征服에잇슴은 勿論이다 (寫眞은 카리오大統領)

聖上、寺內大將의 歐米事情講演을御聽取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七日午後二時부터 宮中御學問所에서 最香나치스黨大會에招請을받고 渡歐、伊太利를 비롯하여 戰亂의 歐洲를 視察한後 米國經由歸朝한 寺內大將을 부르옵시사『歐米의 視察에關하여』라고 題하여 伊太利、獨逸、米國等을歷訪、各地의 民情을비롯하여 獨波戰爭等歐洲大戰下의 視察狀況에關하여 一時間남어지동안御講演을御聽取하옵시고 여러가지御下問을하옵섯다고 拜承되는데 現下의歐米情勢를軫念하옵시는大御心에 寺內大將은恐懼하여 午後四時지나서 宮中을退下하엿다 그리고이날湯淺內府、松平宮相、百武侍從長、蓮沼侍從武官長等側近에도 御陪聽을 盼咐하옵섯다

東京驛에到着한 滿蒙支東亞經濟懇談會委員

控訴院長 檢事長會議

【東京電話同盟】司法省에서는全國控訴院長、檢事長이 入京한것을機會로 七日午前十時부터 法相官邸에 控訴院長、檢事長會議를開催하엿는데
一、勅語를奉體하여 司法權의運用의治績을 거둠에對하여 考慮할事項
을議題로서協議를 行하엿다그리고 會議는八日도繼行、最近去益增加되는 經濟事犯 就中闇取引取締對策에關한 協議를 行할터이다

英타임쓰紙 我稅制改革案賞讚

【倫敦六日發同盟】타임쓰紙는日本의 稅制改革案을 크게賞讚하여 六日社說에서 이果斷한 稅制改革은 英國大藏省에 有益한示唆를주는것이라하여 讚辭를 呈하고잇다 그大要는左와如하다
日本의 今回稅制改革案은 大英斷이며 그改革은 英國大藏省에對하여도 有益한 暗示를주는것이다 我大藏省은 往往人間性에對한 意識을 缺하는境遇가잇는데 日本의 新稅制는 人間性을所有하는것을 認定하나 生存上必要品이라고主張할수업는것에 對하여는 直接課稅하고잇다 이顯著한例는愛玩用動物에對한 課稅이다

東亞經濟懇談會

宣言及聲明發表로終幕

【東京電話同盟】東亞經濟懇談會는 七日午前九時半부터帝國호텔에서開催、交通及貿易兩分科會에잇서 各各關係事項에 關하여 各地域代表로부터 熱烈한意見開陳이잇고 正午右分科會를閉會、滿支兩國代表는 곳華族會館에서開催된 近衛興亞團體聯合會長招待의 午餐會에 臨하여 東亞經濟同盟體確立問題를 中心으로懇談을 거듭한後 午後一時부터 總會(帝國호텔)에移하여 各分科會座長으로부터 詳細한報告를聽取、東亞經濟建設에 對하여宣言及聲明을하고 同五時東京에서의 大會를 支障업시 終了하엿다 이大會에 出席한各國代表는 同日午後五時부터 歌舞伎座에서 開催된賀屋北支開發會社總裁招待의 觀劇會에臨하엿다

興亞滅共全國有志大會

【東京電話同盟】混沌한 國際情勢下에잇서서 不動의國是인滅共의國策을 부르짓는『興亞滅共全國有志大會』는 七日午後一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開催되엇다 먼저 山田耕作氏의 指揮로 全員國歌齊唱 皇軍將士에 感謝의默禱를올리고 貴族院議員 井田磐楠男의開會辭에이어서 座長으로서 一條實孝公을 推薦하고『世界平和의攪亂者人類의勁敵共産主義의絕滅을期함』以下의 宣言文을 可決한다음 有志演說에들어갓다 陸軍中將 四王天信孝、代議士 山道襄一、道家齊一郞 貴族院議員 宮田光雄、中華民國代表朱鼎、露西亞파시스트同盟駐日代表 미쿠츠키等諸氏가 滅共의熱辯을吐하고 最後로 大井成元大將의發聲으로 萬歲三唱後 盛會裡에閉會하엿다

全滿領事會議第二日

【新京七日發同盟】全滿領事會議第二日은 七日午前十時부터 大使館會議室에서 事務協議會를開催 大使館側 三浦參事官、成田書記官 本省側土田東亞局第一課長、領事側 瀨山奉春領事等 各領事及 關係官出席 外務本省大使館當局及領事側으로부터 各各所管事務處理에 關한方針及意見開陳이 잇섯다 午後도 同協議會를續行하고 六時에 散會할豫定이다

파시스트大評議會 內外重要政策討議

【羅馬六日發同盟】파시스트紀元十八年 最初의大評議會는 오는七日午後十時부터 베네차宮에서 開會하기로되엇다 當日의議題는 伊太利의自給自足經濟强化 蘇聯의對芬行動에依하여 惹起된國際情勢 今後의豫想 伊太利로서取할 今後의빨칸對策 其他에關하여 協議할것으로서 매우重視되고잇다

"死物化"한國際聯盟에 復歸할意思는업다"

가이다氏、伊太利復歸說反駁

【羅馬六日發同盟】一部外國側에서 唱傳하고잇는 伊太利聯盟復歸說에對하여 죠르나레·데·이탈리아紙의主筆 가이다氏는六日紙上에서『時機가이미늣다』는題目下에 論說을揭載하여 이를反駁하엿다
오는十二月十一日로써 伊太利는 聯盟에對하여 何等의義務도업서진다 워싱톤스타紙는伊太利가 芬蘭問題에 同情하여 聯盟에 復歸하여 蘇芬問題討議에 參加하리라고 報導하고잇스나 時機는이미늣저 聯盟은 이미死物化하엿다

日米通商廢棄反對 加州商工會議所

【大阪電話同盟】大阪市立貿易館로산젤스駐在員으로부터 七日同所에對하여 로산젤스商工會議所가 加州政府에 提出한日米通商航海條約廢棄에 反對하는陳情書의 寫文이到着하엿다 右는同會議所貿易部長 크라렌스·엣치·마드슨氏의 執筆한것으로 左와如한十一項目으로되어 日米通商航海條約의 存續更新이 米國에如何히必要할것을 力說한것이다
一、加州와日本과의 經濟的特殊關係
二、米國의 在支權益擁護와 通商條約廢棄와의 關係
三、로산젤스港의 對日輸出入狀況
四、鐵鋼、石油、棉花의 對日禁輸에對하여 豫想되는 日本의對策
五、條約廢棄와日本生絲에의影響
六、過去에서의 日米貿易關係
七、條約廢棄에 關聯하여 日米間의政治經濟問題
八、在支權益에 關聯하여 今日까지의 日米間交涉의歷史
九、支那에서의新情勢와九國條約
十、條約廢棄의直接影響
十一、一九三七年─三九年 米國의對日貿易統制

蘇羅援助條約 即時締結慫慂

【莫斯科六日發同盟】六日發行의 코민테른機關誌『코뮤니스트·인터나쇼날』은 羅馬尼亞에 對하여 蘇羅互相援助條約의 即時締結을 慫慂한警告的論文을 揭載하여 注目을끌엇다 論文內容은 다음과갓다
羅馬尼亞現下의 政治的經濟的狀態에 鑑하여 羅馬尼亞가蘇聯과 緊密한友好關係를 確立하는것은 極히 必要한일이다 蘇聯과의 互相援助條約만이羅馬尼亞를 第二次帝國主義戰爭에 휩쓸려들어가는것을 防止할수잇는것이다

浙江省省內의 共產分子彈壓

【香港七日發同盟】當地支那側에達한情報에依하면 浙江省首席黃紹雄은 重慶當局의 密令에依하여 省內의共産分子에 彈壓을開始하엿다 即同省內各縣當局은黃紹雄의 命令에따라 共産派容疑靑年을 모조리 檢擧하여 그數는 이미 數千에 達하엿다 그때문에 各地監獄은 滿員狀態라고하며 他方地方敎育當局은 共産主義의 嫌疑가잇는 學校敎員을續續放逐하고 잇는데 右處置는 敎育部長 陳立夫의密通牒에依한것이라고 한다

無言의威力發揮

黃大偉將軍陣中談

【汕頭七日發同盟】지난三十日潮州堂 紹安에入城한 建國軍總司令黃大偉將軍은 今番戰況에關하여 六日如左히말하엿다
中國四億民에잇서 和平이냐抗戰이냐는問題는 이미解決되어 오로지實行方法如何가 問題일뿐이다 自己는 實力에依하여 和平을 誘導코자 압서六全大會決議에 基하여 潮汕에서 省境까지는 無人地帶를 가드시進擊 敵獨立第九師에 遭遇하엿던바 그들部分은投降해왓다 游擊隊는 各處에서 建國軍에 歸順하겟다고密使를 보내와다 分水關附近에서는 七十五師와 激戰을交하여 我方에 數十名의 負傷者를 내엇스나 敵에준 損害는莫大하여 戰死傷者六百、捕虜百、小銃十數挺、彈藥三萬發을鹵獲하엿다 이戰果를 거두게된것은 日本側航空部隊가連日早曉부터 夕刻까지 空中에서掩護해준德澤으로서 一生에 잊을수업는感激이다 我方建國軍은紀律을益益嚴하게하여共産軍과蔣介石軍과가치 無辜의 民衆을 괴롭게하지안코 잇스므로 가는곳마다 人民의大歡迎을 밧고잇다 我軍의標語는 擴大與共이며 目的을遂行함에잇다 抵抗하는者는 斷乎擊滅하여 無言의威力을 發揮하고잇다

保障令撤廢는極難

樞府方面反對機運濃厚

【東京電話同盟】官吏身分保障令의 撤廢에 對하여는 政府는一意그 實現을決定하엿스나 그後의 各閣僚가 樞府方面의 意向을打診한結果 反對空氣가相當히濃厚하므로 假令政府가 決定하여도 樞府通過는 困難하게되어 政府는 當面 食糧問題 燃料問題等 緊切한國內諸問題의 解決에 迫到되엇스므로 于先그對策을決定한後 適當한機會에 官吏身分保障令撤廢에 나가기로되엇다 따라서 八日閣議上程의 豫定은 이것을中止하고 그結果 現內閣案의一이던 官吏制度改革의年內實現은 어예絕望視된다

芬蘭作戰蘇聯軍 總數는約五十萬

芬軍은四十萬으로對戰

【헬싱키六日發同盟】芬蘭軍은蘇聯의大軍에對抗하여 各地에서善戰하고잇는데 五日 헬싱키에達한情報에依하면 芬蘭攻略의 蘇聯兵力及 그作戰目標에關하여 如左히傳하고잇다
即芬蘭侵入의蘇聯軍은 메레츠코프將軍麾下의 레닌그라드軍管區第七軍團으로有力한戰車部隊를가지고잇다 其中카렐리아地峽에는 約五個師團이配備되고 라도가湖北方에는 約四個師團이 集結되엇는데 此等蘇聯軍의 配備로보아 蘇聯의主要目標는 라도가湖及보스니아灣岸을 連結하는 鐵道幹線으로부터 支線을 奪取하는데 잇다고 觀測하고잇다 一方 芬蘭北端에서作戰의蘇聯軍은 페다크샤(白海沿岸)의 스키部隊로 蘇聯이 三十日 芬蘭에侵入開始以來 今日까지 芬蘭領內에 約四十키로까지 進出함에 不過코 各地에서 芬蘭軍의反擊을만나 多大한損害를받은模樣이다 그런데 瑞典消息通의 見解에依하면 芬蘭作戰의 蘇聯軍은 總數約五十萬에達할模樣으로 芬蘭軍은 約四十萬으로서이에對抗하고잇다

芬最大要塞線 蘇軍、遂突破

【莫斯科六日發同盟】蘇聯軍發表 蘇軍은 六日砲兵主力의掩護를어더 芬蘭이마지노카크要塞線이라고稱하여 그堅固를자랑하는 뷰오크시運河에沿한 要塞線에猛攻을加하여 戰車裝甲車와 機關銃座를粉碎하면서 이를突破하고更히北方으로進擊하여 라이파레니오키河에 肉薄하엿다

英艦獨商船拿捕 南大西洋上에서

【케잎타운六日發同盟】獨逸汽船우스쿠마號(七、八三四噸)는六日南大西洋上에서 英國軍艦에게拿捕되엇는데 乘組員은 捕虜로서全部英艦에 收容되엇다 拿捕에際하여 乘組員은 自沈케하려하엿스나 成功치못하고 英艦은 救助할수잇섯다

參議會

【東京電話同盟】七日定例參議會는 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서開催 靑木藏相으로부터 稅制改革要綱에 關하여 또酒井農相으로부터 米穀配給等 當面의諸問題에關하여 各各詳細한說明을하고 參議側으로부터 米穀對策이 確立되어잇지안타 國民의不安을 除去하라고政府를督促 正午散會하엿다

藥品輸出統制規則

【東京電話同盟】厚生省은藥品의 輸出統制를 圖謀하려고 압서衛生局에 藥品生産課를 設置하엿는데 今番更히 左와如한藥品輸出統制規則을制定 七日官報로써 公布 即日實施하기로되엇다 右規則의適用範圍는 藥品原料及一般人인데 販賣以外의 目的으로輸出하는 原價五十圓以下의것은除外되고 輸出할수잇는港은 橫濱 神戶 大阪 名古屋 長崎 門司、關稅等諸港으로 限定될터이다

抑留한戰時禁制品 七十三萬五千噸

開戰以來英佛側統計

【倫敦六日發同盟】經濟戰爭省六日發表에依하면 開戰以來 英政府에沒收된貨物은 七十三萬五千噸에達하고 그中四十七萬三千噸은 英政府가 抑留한것이다 또十一月三十日까지의 一週間에 佛政府에 抑留된것은 二萬五千三百噸에達하엿다

치타會議遂開幕

【치타七日發同盟】노몬한事件의後始末을 爲한 滿蒙國境劃定委員會는 豫定과가치 七日午前十一時부터 치타市에서 開催되엇다 會場인 蘇蒙代表部는朝來日滿蘇蒙四個國國旗로서 裝飾되엇다 會場에는 먼저 久保田代表는日滿側을 代表하여 보구다노프代表는蘇蒙側을代表하여 人事를交하고 會議에들어가서 正午 雙方代表가 各各所定의 位置에着席 日滿蘇蒙四國修好上에 重要한意義를가진치타會議는 開幕되엇다

英國海運省 又復運賃引上

【倫敦五日發商通】英國海運省은 前般에 英國戰時貨物運賃을 公定하엿는데 今日에이르러 戰時에依한 危險增大와 船腹不足으로因하여 中立國船의 運賃은 날로暴騰되어 非常한不均衡이 發生되엇스므로 海運省은 今日부터 英本國間 貨物運賃을約二乃至三割가량 引上할것을 發表하엿다 이에依하여 船主間의不平은 若干緩和되엇는데 아직도 中立國船과의 사이에는 매우큰 差異가잇서 原價高騰과 危險增大를 카버ー하기에 不足하고 船價高騰의今日 代船建造의 價額을行하기에는 不充分하다는소리가 財界에만하다

商工辭令

燃料局事務官 鈴木重郎

人事·集會

任關東州廳事務官兼關東局書記官(四等)
命關東局物資調整課長
關東局書記官 吉田第一郎
命燃料局燃料部長兼燃料局總務課長
關東局書記官 淺田督
任燃料局事務官(三等)
命燃料局石炭部長
燃料局事務官 淸井貳四
命石炭部炭業課長
商工書記官兼外務書記官 奧濃部洋次
任物價局事務官(四等)
命物價局第一部總務課長 矢野宏太郎
任物價局事務官(七等)
貿易局長官 寺尾進
依願免本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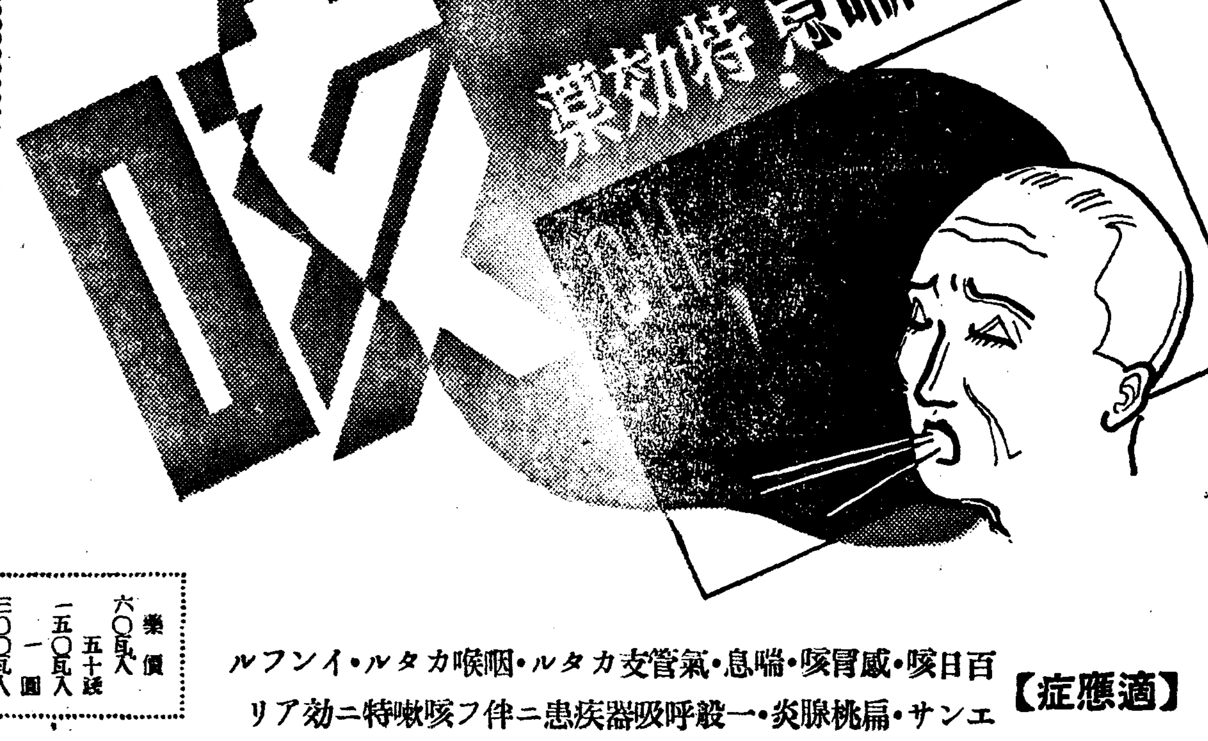
▲湯澤辰二郎氏(總督府農林局長) 食糧對策協議次渡東中十二日아까쪽끼로歸任豫定
▲渡邊郎氏(新任總督府企畫部第二課長) 十二日京城驛着아까쯔끼로着任豫定
▲尹相駿氏(總督府拓務課事務官) 八日午後二時四十二分京城驛發南朝鮮地方에一週間出張豫定
▲盧鎭璞氏(本社庶務部長) 市內城北町一八四의九〇으로轉居
▲趙平紋氏(朝鮮總督府判事)平壤地方法院赴任人事次七日來社
▲植村雄吉氏(朝鮮製藥組合長) 新任人事次 來社
▲全用淳氏(同副組合長)同 上
▲全洹俊氏(同會計幹事)同 上
▲久保宗一氏(同庶務幹事)同 上

海棠廣西各地爆擊

【香港七日發同盟】中央通訊社來電에依하면 昨六日午前十時頃日本軍飛行機는 二回에 亘하여 廣西省邕江(南寧東北百키로)을 空襲 軍事施設을 爆擊하엿다 또同日午後一時頃 다른 一隊는 鬱江 柳江 合流點의 要衝桂平을 猛烈히 爆擊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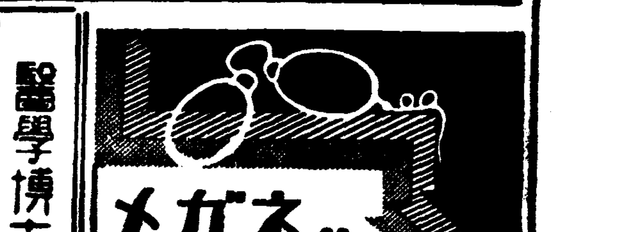
八面鋒

地方廳財源의 均衡을 圖謀하기위하여 地方稅도 國稅가치 富力에 依하여 一率로 徵收하고、
◇
餘裕잇는 地方의 地方稅는 貧寒한 地方廳에 分與하기로하는 新稅制가 明年부터 實施。
◇
負擔의 均衡으로보다 農村人口의 都市集中防止로 보다 絕對로 贊成할 일。
◇
그러나 地方에는 寄附가 만타고 都市도 寄附를 만히 밧는것은 생각할 問題。
◇
國防獻金、災民救濟義捐等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
官署、舍宅等의 建築을 寄附로하는것은 考慮할일、國費支出이 當然又當然한까닭。
◇
蘇芬戰爭 本格化하여 芬軍에 레닌그라드市를 脅威하고 蘇軍은 百七十萬大軍으로總攻擊을 開始햇다고。
◇
强弱이 不同이라 勝敗는 뻔한 일이지만、米英等은 그대로 傍觀하는가。
◇
伊太利의눈치를 보아 獨逸이 對蘇和平을 請할듯하다나。
◇
蘇聯이 獨逸말을 들을 程度의 友邦인가。



鮮滿支有名藥房서販賣
醫藥界에爆彈的 新發明
단一滴의効力으로 數十年된기침도놀나울만치 全快
藥價 六〇瓦入 五十錢 一五〇瓦入 一圓 三〇〇瓦入 二圓
【適應症】百日咳・感冒咳・喘息・氣管支カタル・咽喉カタル・インフルエンザ・扁桃腺炎・一般呼吸器疾患ニ伴フ咳嗽ニ特効アリ
京城府授恩町三二
發賣元 朝日製藥株式會社
電話長光一七八五番
支店=全州・奉天・北京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京電裏)
電話 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2)七二七五番(自宅)



京城帝大眼科 京城医專眼科 京城公眼科 京城赤十字眼科 御指定
京城本町一丁目入口
中村眼鏡店
本局五〇一七 振替京城三四六

十二月新譜傑作 流行歌

OKEH
뒤저본寫眞帖 金貞九
港의靑春詩 南仁樹
南洋아가씨 金綾子
눈물의商船 李蘭影
오케ー레코ー드

애잘낫는朝鮮사람
半年間 四十四萬名出生
그동안死亡한二十一萬名을빼고도 自然增加二十三萬超過無難

나어라! 키어라! 하고 국책선을 북돋을는 조선의 인구가 해마다 늘어가고잇는것은 항오로 장한일이다 총독부국세조사과(國勢調査係)에서 조사집게한 것을 보면 금년들어와 우월까지의 조선내의 조선인 출생수는 사십사만구천팔십명으로하루에 이천사백팔십일명가량씩나흔셈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망한 이십일만사천사백륙십명(하루평균 일천이백팔명가량)을제하면 반년동안 증가한 인구는 이십삼만일천칠백사십명이 된다 이대로 인구가 늘어나가면 금년일년동안에는 사십만명을 훨씬초과하여 과거의 최고기록인 작년의 사십만팔천팔백명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만하 조선은 바야흐로 산아경기(産兒景氣)를 나타내이고잇다

〝産兒景氣〟

橫領漢의豪遊

남의돈을 횡령해가지고 하루저녁에 일천오백원씩이나쓴 로치카십장의 외입성이—부내원정(元町)이정목팔십사번지 고마야오복집에서 금년오월달에 마라보던 도변무웅(渡邊武雄)(二一)은 신임을받아 순입이 술장안 돈을 가지고 소화수표 위조하여 안성은일류은행지점에서 현금칠천원을 차지가지고 미생정(彌生町)유곽으로가서 사흘동안에 사천오백원을써버리고 비행기를타고 대판으로 도망을갓다가 유일아침용산서원에게 부뜰리어왓다

正租價公定方針
아직도大量所有者가放穀을躊躇하는까닭으로 朝鮮도年內에發表豫定

충남북농림국에서는 미곡과다른곡가와의 균형을도모하여 출회촉진하여 수급을원활히하고도자 내지에순응하여 신립현미갑을 오원비싸게공정하고 정조갑은 특히공정하지안코 그후의출회사항을신중히감시중인데 현미갑만공정하면 정조갑은 정미업자가 채산되는범위에서 자유로매매하여 출회가왕성하여지리라는 예상에반대로 대량소유자는 오히려갑을 펑장이 에누리하며 아프로 더오르리라는 근거업는 생각으로 가지는자가만하 생산자와상인의상담(商談)이 정조공정가격이잇슬때보다도 더빽빽하여서 출회에 큰 지장이 되고잇는 현상이므로 다시정조갑도 공정하기로결정하고 지금각산지의품질 가격등을 신중히조사검토중으로 순조로가면 연내에발표될모양이다 내지에서도금춘일부터 정조공정가격을 실시하기로된것이 큰자극이되어 조선의실시를 촉진하고잇다 정조갑을 공정하여도 출회가 단연 시언치안흘때에는 제이단책으로 미곡배급조정령(米穀配給調整令)을 실시하여 강제출하(强制出荷)를명령하게될터인데 동령은벌써 법제국의 심의를마치고 나머지 공포수속을 진행중이다

延安鹽田間빼쓰 增發을要望

【海州】 연백군해성면에대염전공사가시작된 후해남면안에 교통기관시설의필요를 절실히느꼇던바 지난시월조순부터 빼쓰의통행을보게되어 연안연전간에 속도로 발전되어 교통기관시설의필요를 절실히느꼇던바 한다 그런데 빼쓰의 개통이급히필요하다하나 매일일상회의왕복인에도록구하고 매일가치 만원이되어 일반주민은 차를중합하는것이조타하여 당국자의선처를 절망한다고한다

술에걸신들려 綻露된假刑事

일 본정서에 부잡혓다 부외 홍제외리 신립촌(弘濟外里新立村)에사는 홍조호(洪鍾浩)(二一)는 유일오후두시쯤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브립도서판아데서 강원도영월군주천면(寧越郡酒泉面)에사는 민영후(閔泳厚)(二一)에게 자기는형사라하며 신체수색을하여 민이 가지고잇던 소지금 팔십사원을 빼앗은것까지는 무난하엿스나 더 조사할일이 잇다고 민을 데리고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지나요리업 아편원(雅園)에가서 한잔 두잔하다는것이 고만술이대취하게되어 술머시 도망하려고 하엿다 이때 민이 수상히여겨 두명이길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순행중의 본정서원이 발견하고 어렵지안케 체포하엿다

誘拐? 出家?
疑問일으킨二通의便紙와 淸州洪少年의行方

유괴당한것인가? 혼자집을 나간것이가? 충북청주읍 청수정(淸水町)이십일번지 홍덕인(洪德仁)의맏딸홍영선(洪永善)(一七)은이십일전 돌연나간채돌아오지안흠으로 집안에서 그의간곳을찻는한편 그의 소지품을 차즈걸과 간도성훈춘(間島省琿春)동녕(東寧)에 유숙중인 복만조(福滿祖)로부터 『여비는 보내려니냐?』『십일일에 훈춘까지오지아케느냐?』『십일월하순 경성역에출장가니 십이월구일 경성본정(本町)이정목사사번지 청향원(淸香園)에서만나자』는 두장편지가 나왓스므로 홍씨는 곳 복만을 만나려 서울에 온것을 알고 부친이첩을 상경하여 종로경찰서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이복만조는 청운정(淸雲町)백운장(白雲莊)주인의 친척으로 일마전 훈춘으로 출장간것이 판명되엇는데 구일 과연 홍영선과의 약속대로 청향원에 나타날것인가? 이날이 기다려진다

白雲莊側談 복만조는 주인의친척인데 방금 훈춘에출장중이나 이달안으로 돌아올예정입니다 사건의진부는 그가돌아와야 알게습니다 운운

勞動者飮毒

호외면에 유일오후한시경부내아현정(阿峴町)십륙번지 노동자 김종석(金宗石)(二〇)은 양잿물을 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한기도(韓箕道)내외과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은 구하게되엇다 원인은 요즘일도업고 살림은 곤란되어 세상을비관한 나머지에 자살하려던것이다

설탕이귀하다하니까 〝나마까시〟갑시껑충놀럿다
二錢짜리를단번에五割引上

조선사탕 주당에 설탕이 들어온지도 벌써 예입이되어 일반가정에서는 단맛에 중독이되다시피하여 설탕의 혜택을잇게되엇슴니다 내지에서의 설탕기근은 마침내 조선에까지설탕기근을 일으키게되어 식료품점에 푼수거리설탕주머니가 업서진것도 벌써 수개월전일이다 이가튼 설탕기근으로 당국에서도설탕배급에는 모든힘을 다들이고잇스나 생각과갓치는 되지안허 각과자상이『스톡』을아껴쓰고잇는 처지다 이런관계로 가장대중성을 가진 생과자(生菓子)는 언으듯 이전에서 삼전으로 갑시뛰고 더욱크기가 그전것의 삼분의이 가량이되어 설탕에맛들인 도회지사람의미각에는 커다란 이상이생

皇國臣民誓詞柱 參拜時의注意
全朝鮮各學校에通牒

조선신궁경내에서잇는 황국신민서사지주(皇國臣民誓詞之柱)는 조선학도의 적성의상징이며 조선교학의 표주(標柱)로서 영원히 신궁에 봉납한것인데 학교교직원 학생생도와 소학아동들이 단체나 개인으로 기동아메설때에는 경견한 태도로 대체다음과가튼사항을 지키도록 유일학무국장으로부터 각도지사대학 전문학교 관립학교장에통첩하엿다

◀단체인때에는 기동전면에 정렬하여 잇는 국성조각에면대하여 궁성에 최경례를할것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할것 창가『우미유까바』를 한창할것

◀개인은 궁성에대하여 최경례를하고 목소리를내든지아내든지 서사의동음 마음속에서외여 충성봉공의 생각을 새로히할것

이황국신민서사의 기동부근 지역은 항상깨끗이하여야되므로 시내각학생생도 아동이 돌아가며 청소봉사를할 계획이 진행중이다

旱害救濟義捐
有…無…相…通
甲山郡普天面下貧農들이 三南旱害救濟金醵出寄託

백두산(白頭山)산록인 함경남도 갑산군보천면(咸南甲山郡普天面)이란 외오는땅에잇는 부인회와 부녀자야학교의 회원과 학생일동은 남쪽조선의 한해로말미암아 헐벗고 먹을거리가 업서 곤경에 처해잇는 동포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먹음고 하루에한푼씩이나마 머칠동안 거두어모인돈 십오원오십전을 이재민들의구제금으로 전해달라고 칠일 본사혜산진지국에 기탁하엿다

〝숭허물투성이〟合同自動車
一部不良運轉手 規定外料金强要
公約을無視한點도指摘하여 市內各署에每日投書가山積

『개솔린』을 절약하면서도 일반손님의 편의를 돌보게다는일조이석(一鳥二石)의 묘안을 공약으로내세워 경성안의 전영자동차회사가 통합되어 합동자동차회사(合同自動車會社)에서 공약을세웟는것이 여것습니지 금한현자가잇서도 좀처럼 자동차를 타기힘들뿐아니라 자동차운전수가 일일 기화로 일부운전수중에는 전보다 적어진 부수입을 봉충하려고 손님으로부터 규정이상의요금을 청구하는예가 만하저 부민의 비난우에 서게되엇다 이러한 실례로는 최근 부내각경찰서에 투서 또는신고가 연일가치 들어오는데 그중에 가장 심한것으로는 동대문으로부터청량리(淸凉里)까지에 칠원오십전을 바든장신장의 운전수가잇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이러한 불법한 운전수를 엄벌할 방침이나 불행히 피해자중에는 자동차번호와 시간을 정확히 알지못하고 신고하는 판게로 종전의 개인영업때와 달라지기가 한 자동차가 나온영업소만 알아가지고는 불법운전수를 적발하기곤란하여 일반손님에게 이점에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잇다

丁子屋小林氏 四千圓寄附

시내정자옥(丁子屋)주인 소림원륙(小林源六)씨는 한해구제금으로 금사천원을 칠일 아침경성부에기탁하엿다

【社協取扱分】 ◀五十五圓也 大阪關西大學朝鮮人學生一同 ◀一圓也 海州極山學院兒童 ◀百十二圓十二錢也 開城松都中學校生徒一同 ◀六十圓也 好壽敦高等女學校生徒一同 ◀二圓八十錢也 開城東門內主日學校少年部一同 ◀四圓六十錢也 開城公立商業學校五學年一組一同 ◀八圓六十一錢也 開城松都小學校兒童一同

紅蔘密造事件綻露?

종로경찰서사법계에서는 유일밤 돌연긴장의 빛을 띠고 부내수표정(水標町)모의 집에잇든 개성(開城)거주의 김주익(金周翼)가명을 검거하여다가엄중 취조중이데 사건내용은 홍삼(紅蔘)밀조의 혐의인듯 하다고 된다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이야기 ◀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七時三〇分 講演 ◀八時 野談 ◀八時三〇分 唱劇調 ◀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唐材輸入의對策과 漢藥價協定을討議
全朝鮮漢藥業者會議開催決定

사변이래 한약중 당재(唐材)수입의길이 거의막히다시피 되어서 매년열리는 전주(全州) 대구(大邱) 대전(大田)등지의약령시(藥令市)에도 조선서생산한 초재(草材)밧게 나오지안키때문에 한약의배급은 전반적으로 원활치못한 현상이다 조선의한약중 가장중요한것은 대부분 당재인데 당재가 이와가치 용이히 수입되지못하는 형편이므로 조선의 보건(保健)위생에 실로 중대한문제이므로 조선한약수출입통제조합(朝鮮漢藥輸出入統制組合)과 지나약재배급통제조합(支那藥材配給統制組合)에서 총독부위생과의 후원에의하여 오는구일 오전열시부터 경성상회에서 전조선 한약업자회의를 개최하고이에대한 여러가지대책을 협의결정하기로되엇다 이회의에는 총독부 서귀위생과장(西龜衛生課長) 천구기사(川口技師) 세천약사주임(細川藥事主任) 정상기수(井上技手) 각창기수(角倉技手) 경기도에서서중기수(西中技手)등출석하여 각지한약업자대표 약삼십명과 경성한약업자대표(의생대표)등이 출석하리라는데 그 협의할 사항의내용은 지나방면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위당재를 어떠케하면 넉넉히 들어올수가 잇스며 또는 조선산한약을 어떠케하면 넉넉히 수출할 수가 잇슬까 하는 문제를 난상의검토하여 조선내 한약배급의 원활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약가를 적당히 협정하여 수요 공급쌍방의 편의를 꾀하기로 되엇다 이 약가협정은 경성 대구 평양(平壤) 전주 부산(釜山)등각 주요도시의 실정에따라 공정가격처럼가격을 통제한후 준공정가격으로 이것을 경찰에의뢰하여 취체를하도록하려는것인데 그토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漢藥의輸出入統制에關한件
二、漢藥의移出入統制에關한件
三、漢藥生產統制에關한件
四、漢藥價協定에關한件
五、漢藥消費節約에關한件

蓬萊町에大火
京城精米所、朝鮮고무工場全燒 損害十萬圓原因失火?

실이일밤 일일의 전국적방화『데―』를 전후하여 경성소방서에서는 구호연말선탈의경신으로화재예방에만한 일반의 주의를환기하고잇섯스나 칠일아침부내에는 불이두군데나낫다

▲칠일오전여섯시쯤 부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 경성정미소(京城精米所)에서 불이나서 건물전부와 삼섬화물 정미기등을 태우고 다시오정한 조선고무공장에 연소하여 역시건물『모―타―』 고무원료와 상품등을 태웟다 이화재는경성정미소에서 난불로실화인듯하며 손해는 정미소측이 일만팔천원가량이고 고무공장은 팔만여원으로 도합 십만원가량의 손해를 내엇다 그러나 요행히 인명의 피해는업엇다 (사진은 불탄자리)

北米倉町에火災

▲이날 오전여섯시쯤 경성정미소가 한창탈때에 북미창정(北米倉町)팔십사번지 촌전양차랑(村田讓次郞)의 지함(紙函)제조공장 삼층 건조실에서 화로불이 지함에옮아부터 불이낫는데 일곱시경에 진화하엿다 손해는 약이천원가량이다

"이판이어느판인데 집세를올리다니"

구일팔(九·一八)가격 충정지령으로 말미암아 모든상품의물가를 지난 구월십팔일 현재이상으로 절대로올리지 못하게되고특히집세와지대는 작년팔월현재도 올리지 못하게되엇슴에 불구하고 주택난의도수하여 여러가지 고난을 밧고잇는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다가 경찰의 눈에 들어나 취조를바든 그는봉래정 삼정목육십이번지 사는 이잇다 처에 호려서잇는 백여호에미치는자기의세스집에대하여 저간집세를올리어먹은것이다 즉 시내 초음정(初音町)육십팔번지 죽중희구(竹中喜久)에게집세 하던것을 이십유원이라는 사할여의 인상을 비롯해서 종대에는 보증금도업던 집에다가 집세의삼개월분에 사개월분에상당한 보증금을 선납케하는등 집세를올린것만도 열다섯이라는 다수에달하여 드디어 사찰에 걸리어 칠일아침 서대문경찰서경제경찰은 본인을불러다 준엄한유시를 하는동시에 시말서를쓰우고 지금까지 올렸던집세의금액은 전부 되돌려주기로하고 돌려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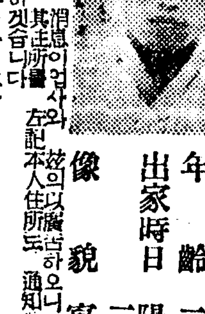
스포―츠
體力管理制 明年實施

國民의體力向上을 目的으로 世界에서처음인 國民體力管理制度는 厚生省體力局의 各方面과 協議한 結果 厚生當局의要求豫算(九萬八千餘圓)을 二百五十萬圓에修正으로 大藏省의査定을 끝하여 明年七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다 그러나 一體으로 約四分之一로 減少되엿스므로 厚生省의當初案인 十二歲以上十九歲未滿의 男女一千萬人의體力管理는 不可能하므로 再檢討한 結果 初年度는 十五歲以上十九歲未滿의 男子 ...

中等籠球 聯盟戰總評 (5) 李性求

局對抗卓球

債權者에福音
朝報案內
興信整理社
讓店
洋服 富永洋服店
木工募集 一流家具社
事務
女給人募集 改築增員 新築完備 住込歡迎 樂園會館事務室
李冑龍아!
技術者急募
천식 無料로드립니다 百日咳에 인분에 廣島縣安佐郡龜山村 森本作市
解熱 全劑 カゼピリン RPT KAZEPIRIN
神經痛에不可飮
狩獵免狀不要 出賣 各種高級空氣銃 世界最優良コメツト特大型空氣銃 高級オリヂナル特製空氣銃 R型特製ダイアナ大型中型空氣銃 カタログ進呈 地球堂銃砲會社
出家子搜索廣告 姓名 朴明德 年齡 二十二歲 出家時日 陽去六月二十日頃 像貌 寫眞과同 右人의實父 朴秀燮
有利事業 被服商案內 本商會에서 今番營業을大擴張하옵고 各地方에有利한條件으로 取引店을 大募集하오니 勿失好期하시고 申込하시면明細한規定書全部를 無料로 보내드립니다 既成服 作業服 學生服 紳士服 保身被服商會 營業所 平壤府辭岩里一九七 電話四〇六〇番 工場 平壤府景昌里
祝朝鮮日報社伊川支局發展 (電話三一番開通) 伊川郡農會
伊川郵便所長 手塚貞助
伊川面事務所 職員一同
伊川郡邑內大主敎會 神父 韓永福
HHH 最高級品 靴를튼튼케하는 靴を丈夫にする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虫退治 マクニン 마구닌
結核諸症 グアヤコール ブルトーゼ



軍變科目을차저서 ①

物理學의 科學武器의生産場 "實驗室"의威力

最新課題를말하는…韓仁錫講師

새時代에 學術도動員

物理學에 關한 새로운 『코-쓰』를 우리 研究의 蘊蓄이 林教授를 차자 靑年學徒 韓仁錫氏를 만났다.

「實際요. 別로 새로운 研究라고해서 따로이 最近에 始作한것은 업습니다만 몃가지 興味를 가지고잇는 科目은잇습니다」

하며 자리를 勸한다.

그리 크다고 할수업는 키에 말승조차 무거우니 靑年少壯派 科學徒로서의 沈着한 風貌가 如實히 나타나 보힌다.

「조습니다 特히 그中에서 戰爭과 關聯잇는 科目이 잇스면 그것을 말슴해주십시요」

하고 記者는 드디어 本色을 綻露하고 말엇다.

「첫째는 超音波에 關한 이야기입니다. 超音波를 利用해서 現在 歐羅巴 各國에서는 新兵器를 製造하고 잇습니다

第一次歐洲大戰 當時에 聯合國側이 海上을 封鎖하므로서 여기에 괴로움을 바든 獨逸은 드디어 無制限潛水艇戰을 實施하고 多數의 商船、商戰艦을 擊沈식킨 일이 잇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안는敵…『U보-트』의跳梁은 聯合國側의 肝膽을 서늘하게하여

潛水艦(防禦策에 머리를 썩게하엿던것입니다.

그러기爲하여서는 敵의潛水艦이 숨어잇는 곳을 빨리 알아내는것이 무엇보다도 緊急한데 當時 "러시아"의 "시로스키"氏는 佛蘭西政府에 超音波를 利用하여서 潛水艦의 位置를 發見하는 方法을 提案한 일이 잇습니다.

佛蘭西의 "란지봔"教授는 이것을 基礎로 水中通信이란든가 潛水艦을 探知하는 方法을 研究하여 顯著한 功績을 남기엇는데 大戰이 끗나고平

時의 귀에 들리는것은 振動數 每秒十六回로부터 一萬數千回까지의 範圍로서, 每秒數萬回라든지 數十萬回라든지하는 振動數가 놉흔……即 高周波의 振動은 벌써 우리귀로서는 音으로서 感覺할수가 업는것입니다.

이가튼 振動을 [illegible]

超音波([illegible] 하지면 [illegible]

「그러니까 이러한 研究는다만 [illegible]」

「[illegible] 科學者는 아니겟지요?」

[illegible]

試驗管(內에서 超音波를 通過하면 삽시간에 混合되어 물과 기름을가른 [illegible]

新兵器(는것입니다. 第一次世界大戰 當時에 새로이 發明된것으로서 戰車라던가 毒瓦斯라던가 하는 多數한 科學兵器가 잇는것을보드라도 넉넉히 首肯될것입니다. 科學者의 魅力을 다시금 느끼며 氏와손을 나누고 일어섯다

그러니까 現代의 科學者로서는 平時부터 研究를 싸하두엇다가 戰爭이 始作되면 이科學의 힘을 應用하는것입니다.

學藝

文壇一年報告書

沈滯、模索의時期

李源朝

文壇이라는것이 文學의潮流、流派、傳說가튼것의 形式的指圖이라면 文壇을 이야기하는데는 單純히 局面上에 나타난 形態 即 文壇行事라는것과 그局面의 推移나 變動의過程 即文學의動態나 成果를이야기하는 두個의 側面이 업슬수업슬것이다.

이러케 보다면 今年의 우리文壇은 例年에比해서 文壇行事가 文學의動向보담 훨신 더뚜렷하게 보이는바가잇다. 그것은 첫째 北支에皇軍慰問文壇使節을 派遣한것과 다음으로는 最近에 結成된 文人協會이다. 그러나 이러한 뚜렷한 文壇行事가잇는 反面에 우리 文學的成果는 어떠하나하면 별로 이러타할만한

傾向

이러던지 새로운 潮流가 形成되자 못하엿다. 우선 昨年에 比하드래도 評論界에잇서서 『휴마니즘』論이나 知性論가튼 具體的 『테-마』가 今年에는 論議되지안햇다. 描尾로 教養論이 問題되기는햇스나 이것은 대개 敎養의 現代的位相을 이야기한것이지 決코 그것으로서 우리의 評論的立場을 만들만한것은 되지못하엿다. 그러면 昨年에 그러케 問題된 『휴마니즘』論이나 知性論이 무슨새로운 發展을햇느냐하면 그러치도안엇다. 그러므로 今年의評論界는 한마듸로한다면 모든事態가『휴마니즘』論이나 知性論으로는 收拾할수업는 地境에 이르럿는데 그러타고해서 이 現實을 科學的으로 把握할만한 새로운 論理도 發見하지 못한、一種의 模索期가 아닌가한다. 이 事實을 證明하는 한가지現象으로서는 今年에드러서는 文藝學的인 原理的評論보담도 技術論的인小說論이나 作家論이 더盛行햇다는것을들수잇슬것이다. 이러케보면 實驗의 傾向은

技術

에게잇서서 作家向은 더한층 明確한바이잇다. 그것은 中堅層에잇서서도 今年一年間의 代表作이라고할만한佳作들이라던지 또는 여러가지로 試驗된 技術的努力은 모두 苦心한 痕跡이 보이거니와 特히 新人層에잇서서 技術水準은 놀나운程度에이를엇다고 볼수잇다.

첫째 詩에잇서서 今年에 出版된 詩集이 數爻로서는 前年만 못할는지모르나 質에잇서서는 往年에 넘도나도한듯 詩集洪水時代에比해서 훨신 뛰여난 新人詩集을 『三種』을엇을수잇거니와 小說에잇서서도 新人이라고하는 몃몃분의 技術水準은 나이로만 中堅行世하는 凡庸한作家보담훨신高度의분이 업지안타. 그래서 이러한事實이 바로今年下半期에 드러서 喧喧囂囂한

新人

新世代論이다. 對中堅可畏不可恐의問題까지 잇섯든것인데 이 問題의 이러한原因이 바로 技術問題 그것이아닌가한다. 왜 그러냐하면 世代란 歷史的概念인만큼 新世代라면 新世代에 비길만한 時代的意識이나 歷史的인 文學精神이어야는데 新世代라고할수업는데 메메분의 秀逸한 新人의業績을 推獎하는心情으로써 그것을 新世代라고일컷는것은 다만 그네들의 高度한技術에 眩惑한남어지에 過度한期待를한것이 안인가한다. 이것을 新人층에서 보드래도 新人들이 中堅에對해서 指摘하거나 非難하면 不滿까지도 품고잇스면서도 그것이 한개의感情狀態에 머물을뿐이고 아모런 具體的理論으로써 中堅의 牙城을 肉薄하지못하는것은 自己들의 技倆이 中堅이 무서운것이 업스나 새로운 文學精神이나時代意識을 把持하지못한때문이아닌가한다. 何如間 藝術이란 어떠한意味에잇서서든지 한개의

內部

的圓熟을經過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인데 今年에드러서 모든方面이 一種의 自己沈潛과 內部的 模索의時期이라면 이러한 內部的圓熟이다시 外部로向해 展開될때 우리는참다운 文學的潮流나 傳統을期待할수잇슬것이다. 그러데 여기서 또한가지 特記할것은 今年에드러서 가장權威잇는 두개의純文藝雜誌가 創刊되엿다는것이다. 이事實은 年來로 우리가 다가치 願望하든것인데 이제 가장 信任할만한 編輯者에게依해서 刊行되고잇슴은 우리文學 發展에對해서 크다란 寄與가잇슬것을 밋는바이다. 制限된 紙面이라 一年間所感을 적는程度에 지나지못함다.

世界의귀

完全한原人의頭骨發見

요지음 伊太利『로-마』에서 五十『마일』을 격한『몬테·칠케오』라는 海岸의休養地 어떤洞窟속의 祭壇비슷한곳에서 『네안데르탈』人의 頭骨을發見햇는데 지금까지 發見된이種類의頭骨中에서는 가장完全한것이라한다. 『네안데르탈』이라고하는것은 몃萬年前에地球우에살든原人의一種族이다. 이頭骨은 그額面에棍棒으로어더마저서죽은 形跡이 잇다고하며 그場所는 무슨宗教上의 儀式이集行된곳갓다고 한다. 『로-마』王立大學人類學教授『셀기오·셀기』博士는 이頭骨을鑑定한結果『네안데르탈』人은『꼬릴라』나猩猩처럼 아프로 수그리고댕긴것이아니고 우리와마찬가지로 直立하고 거러댕겻다는說을세웟다.

李愛內獨奏會評 (下)

朴慶浩

우리가 恒用말하는바 『테크닠』(運指術?)은 結局에잇서서 發音과 가치 重要한것일게다. 李愛內의 順序中 네가지『넘버』가 全部過半이엇다. 『테크닠』이아니면 成功할수업는 曲目들이엇다. 『빠흐』『베토벤』이 그러하거니와 마지막 『쇼팽』도 『테크닠』을 要求한다기보다 難曲으로 有名한것임에도 不拘하고 그만큼 流暢한演奏를 들려줌에는『感嘆』二字外에는 아무것도업다. 그의 『페달링』이조타. 大衆은 『피아노』란 손가락으로치는 『피아노』라는 觀念을가지고잇다. 이것은 不足한觀念이다. 『피아노』는 全身의 운지다. 末梢的效果를 내기는 손가락이라하겟지만은『피아노』를 칠때에는 人體의 筋肉이 全部動員 『三百餘個의 하는것이勿論이고 兩足도 거의 손가락과 가튼 作用을 하지 안코는 안된다. 이것을 所謂 『페달링』이라한다. 無數한『피아니스트』는 이『페달링』의 訓練不足으로 因하야 다른모든가지의 技術을 망처오는 일이 흔히잇다. 李愛內의 『페달링』은 『完全』그것이라 하여도 조타. 그中에도 첫번『빠흐』의 巧妙한 『페달링』에 依하여 左手의 主題를 가장 아름다웁게 아뢰는것이라던지 또는 『페달링』이 極히 困難한『쇼팽』의 C短調『에튜드』(俗稱革命에튜드)의 演奏에서도『페달』의 巧妙한 使用으로 左手의 走奏部는 文字그대로恍惚한效果를 내엇섯다. 最後의 『푸로그람』이나 李愛內의 演奏風으로보아 李愛內의 藝術的 傾向을 짐작하기에 어렵지안타. 그는『빠흐』의 古典作品에 가장 天分의 才일것이고 浪漫派의 作品이라면 亦是比重味豐富한 『베토벤』이나『쇼팽』이라하여도 極히 『아카데믹』한 分野의作品(綺想曲、前奏曲類)의 境地를 開拓하는데 하는 懸이잇다. 마지막으로 希望이라면 今番第一回에 끄치지말고 아프로꾸준한練習을 繼續하여 演奏會를 公開하기바란다. 우리 사람으로도 『피아노』獨奏會를開催한者 無數하나 아직 第二回의 獨奏會를 開催한者가 업다(筆者其中一人). 바라건대 李愛內은 이 傳統을 맑고 지안은 演奏하지말기 衷心으로비는바이다. (完)

古語의魅力 (四)

死語의復活에대한若干의參考

田蒙秀

답사히

이말은『報』의義에 쓰임(답상)에 『-』를加하야 他動으로한 말이다.

답사흐리 三峽에 ᄀᆞ득ᄒᆞ엿고 (杜諺 三의二八)(積水駕三峽)

甲니본 므른 구름 답사혯도다 (杜諺 七의二五)(鐵馬雲霧積)

주거미 답사호매 플와나모왜 비누ᇹ고 (杜諺 四의一〇)(積屍草木腥)

近日의 文學作品中에 『積稽』、『積置』等의 漢字語가 散見되는데 이러한말은 文學語로서 應當히 拒否되어야하고、『답사히』란 말이 그자리를 차지하여 조흐리라 밋는다.

바지롤

『工匠』을 지금은『바치』라 말하지만 이러한말은『바지』다.

工匠曰把指 (鷄林類事)

海中엣 五百商人이 바지 보비 어더와 바리숨ᄂᆞ며 (楞嚴 一의四五)

이『바지』는 『工』의『바지』에 形容詞語尾『롭』을 부친것으로、『技、巧』의義이다.

힘써도 바지로이 몯ᄒᆞ니 (力未工) (杜諺 一五의三九)

새뱃곳고리는 내눈을 흘리게 호ᄃᆡ 바지로이 ᄒᆞ고 (曉鶯工迸淚) (杜諺 一〇의二七)

바지로이 ᄒᆞ야도 利益ᄒᆞ미 업스니 (工無益) (杜諺 一五의八)

더욱 먼양ᄌᆞᄅᆞᆯ 바지로이 ᄒᆞ야 (尤工遠勢) (杜諺 一六의三一)

바ᄃᆞ랍

이『바ᄃᆞ랍』은『危、殆』의義에 쓰인 朝鮮初의 古語로『富』의『가ᄉᆞ멸』과 함께 常識化한 말인데 實際에 이말을 쓰고잇지안흠은 아타까운 일이다.

게신ᄯᅡ히 便安ᄒᆞ야 바ᄃᆞ〇디 아니ᄒᆞ시며 (釋譜 一의五六)

時節이 바ᄃᆞ라온제아 世예업슨 져조ᄅᆞᆯ 비르소 알리로니 (時危始識不世才) (杜諺 八의一八)

時節이 바ᄃᆞ라오ᄃᆡ 사ᄅᆞ미 急迫ᄒᆞ니 (時危人事急) (杜諺 七의一五)

이바ᄃᆞ랍은 石千千字文에는 羅音調和의 法則에 매여저『바드랍』으로 되어잇다.

殆—바드랍을태 (石峰千字文 三〇)

가시、

이말은 『更』의 [illegible]의 副詞이다.

庾信의 文章이 늘거 가시야 더욱 爲ᄒᆞ니 (庾信文章老更成) (杜諺 一六의一一)

너는 가시야 나히 져고리能히 그툴지ᄂᆞᆺ다

흑 音便에 依ᄒᆞ야 『가ᄉᆞ야』라도 하엿스니 다음의 一條는 그適例이다.

(汝更少年能綴文) (杜諺 八의三〇)

ᄆᆞ는비옌 가ᄉᆞ야 楊子를 옮겨심고라 (細雨更移橙) (杜諺 三의 一六)

이말은『更、更』의 [illegible]에쓰는 動詞『가신』를 [illegible]하야 副詞形으로 한것이니 저 有名한

新文學史

林和

第二章 新文學의胎生 (三)

第一節 過渡期의文學 (續)

그러나 過渡期의 文學이 漢文대신 諺文으로 自己를 表現키 爲하야 李朝의 諺文文學의 遺産을 回顧한것을 우리가 곳 西歐의 『르네상스』에다 比較할수업음은 當然한일이다. 李朝의 諺文文學에서 우리는 『르네상스』時代의 사람들이 希臘과 羅馬에서 發見한 古代의 精神、古典의 完美를 發見할수업는것이 亦是 當然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封建的文學에 不適하엿다. 그러나 幼少한 市民의文學으로서의 過渡期의新文學은 漢文과 訣別하면서 곳 그것에 代身할 새 諺文의 文體와 作品의 形式을 創造할수업섯든만큼 舊時代의 衣裝을 借用할수박게 업섯든 것이 또한 過渡期에 잇서서 李朝時代의 諺文文學의 樣式的 傳統이 相當한 期間 新文學을 支配한 原因에 한아가되지안는가한다. 韓末의 新聞이나 雜誌를 처음 文章에 使用되던 漢文에 吐만 단것가튼 或은 漢文을 譯讀한것가튼 諺漢文混用體가 現代文章이 漢文으로부터 解放되는 第一步엿다면 그時代의 文學形式인 政治小說이나 唱歌나 新小說은 現代文學이 李朝의 諺文文學으로부터 脫出하는 第一步엿다고할수가 잇다.

이것은 李朝의 諺文文學과 新文學과의 交涉을 主로 否定的인 側面에서 考察한것이나 도리켜 新文學形式에 잇서서 李朝의 諺文文學이 演한 役割을 생각하면 또한그 功績의 不少함을 놀라지 아니할수업다.

漢文과 訣別하여 그야말로 依文學이엇는 文學으로하여 再出發의 起點이 되여준것도 李朝의 諺文文學이요 아직自己의形式을 發見하지못하여彷徨하던 裸身의 새時代文學精神에다 風雨를 避할衣裝을 입혀준것이 또한 李朝의 諺文文學이다. 要컨데 비록 낡은 樣式가운데 結合되엿다 할지라도 李朝의 諺文文學과 古代朝鮮語의 寶玉이 숨어잇섯다. 그 寶玉들을 가지고 새時代의 文學은 오직새로운 樣式을 構造하면 그만이엇다.

이點에잇서 特히 또하나 看過할수업는 것은 時調、歌詞、唱曲、小說等의 數多한 李朝諺文文學의 遺産中 새時代의 文學이 가장 가까운 形式의 밧구어말하면 平民의 精神을 담을 容器될 資格을 어든點이다. 文學에 잇서서 前代의 文學中에서도 比較的 平民的인 文學이엿던 小說과 唱曲、그러고 歌調(이것은 또한 朝鮮의 民謠의 形式과 近似한것이다)의 一部分이 再生할데 不適하다.

諺文文學中 가장 貴族的이엇든 時調가 새로운文學의、特히 새로운 詩歌의 母體가 될수 업섯든 것도 歷史的 事實이다. 이것은 『南薰太平歌』의 金天澤、『海東歌謠』의 金壽長等 一代의 名歌人들이 平民歌壇에서 輩出하여 時調史上 未曾有의 盛觀을 呈하여 時調가 平民의 文學으로 나려오는대로 하엿스나 그實은 더平民的이고 아주 庶民의 藝術인 唱曲(主로歌詞)의 勃興을 準備한데 不過하엿음을 생각할때 우리는 時調의 限界라는것을 一層感銘깁게 생각할수잇다.

[illegible] 『海東歌謠』를 現出시키지 아니햇는가한다. 이러한 新文學의 成立과 在來의 文學傳統派의 交涉도 詳細히 한다면 어떤 形式으로 對照하여 드러가고자한다. 이것은 나自身의 推測인 것보다 過渡期의 新文學이 體驗하고잇든 自然스런 姿態이기때문에 우리는 理解의困難을 [illegible] 것이 엄기때문이다.

新刊紹介

◆體育日本 十二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有樂町一ノ一 大日本體育協會 定價三十錢 送料一錢五厘

◆朝鮮辯護士協會報 第八號 發行所 京城地方法院辯護士控室內 朝鮮辯護士協會 振替京城二〇〇七〇番 定價三十錢

新春懸賞文藝募集 [illegible]

學藝안테나

同人詩誌『典型』發刊

東京에잇는 李琇馨、申 [illegible] 數人의손으로 이번에 詩同人誌『典型』을 發刊하기로되엿다한다. 同人間에서는 一般의期待가크다고한다.

八道俗談 (三) 方鍾鉉

(二九) 목귀에 무은 곰이 발귀로 호론다

[解] 웃사람이 不從하면 그부하에게 影響하게된다는 뜻이다.

[註] 머리꼭대기에다 물을부으면 발꿈치로 흐른다는 말이니 上이 不淨하면 下도 不淨할것이 아니고 꼭대기부터 조심하라는 말이니 上의 意圖가 그대로 下에게까지 미친다함이라 (此受也)

[其諺類似] 淸頂之水必止 (上不淨則下不淨之意)

[於用韓諺] 淸頂之水流下足 (上之意必有流於下)

[杂諺類] 濁頂水流足底 (同上)

(三〇) 꼰닭의알 꼬끼오하거던

[解] 希望할必要가 업음을 두고 이름이라

[註] 가마귀대기리하거던 병풍의닭이 홰를 치거던

咸北民族의 一節을 紹介하면 이러하다

넘아넘아 우리넘아
이제가면 언제올래
삶은팟이 싹이 나거던
병풍에 그린닭이
꾹고울면 다시올래
동소데 삶은밤이
싹이나면 다시올래
고목나무 새싹도다
꼬치고면 다시올래

겨울에도健康케

疲勞를恢復

疲勞는 한시밧비 恢復하지않고 漸々甚해지면 過勞가됩니다。激烈한活動時에 비타민A가特히많이必要한것은 이運動家의例로서確認된바인데 一般的으로 奔走한분들에게도「理研비타민」이推奬되는것은 疲勞가迅速히恢復되며 過勞로因하야衰退된 健康을徹底히恢復하기때문입니다。

感氣를豫防

腺病體質인분은勿論 健康한분이라도過勞로부터 感氣에걸니기쉽습니다。비타민A와D는全身의表面組織即皮膚와粘膜(呼吸器粘膜)을 强化시키는作用이强하므로 卓越한感氣豫防素입니다。感氣에안걸니기爲하야서도「理研비타민」을꼭服用하십시요。

信用잇는 純비타민A·D

理研비타민은肝油로부터精製抽出한純粹한비타민A와D를 먹기좋은「구로뷰-루」球에집어봉은製品——한개속에 肝油의數十倍가되는 七七〇〇國際單位의비타민A와適當한비타민D가드러잇습니다。用量은두개식만자시면充分한데 肝油와달라 魚油나不純物이含有되지않엇음으로 絶對로安心하고適用하실수잇습니다。

七七〇〇國際單位
四〇球…二圓
一〇〇球…五圓

婦人小兒用小粒
三九〇〇國際單位
五〇球…一圓三〇錢
一〇〇球…二圓五〇錢

全鮮藥房에잇슴

帝國學士院賞受領　財團法人 理化學研究所製品

理研비타민

理研ヴィタミン

總代理店 東京·大阪 株式會社 玉置商店

經濟朝鮮解說

戰爭과通貨 ③ 圓링크幣制樹立

占據地의通貨

戰爭과 通貨에 對해서 論하는 外에 가장 重大한 問題는 占據地에 있어서의 通貨를 어떠케할가가 問題이다. 大陸에서는 中支占據地에 있어서의 通貨를 軍票로 一元化시킬 目的으로 日銀券의 軍票交換手續을 發表하였다. 이點에 對해서는 나종 詳細히 論述할 것이다.

今般事變은 昭和十二年七月七日 北支河北省의 一隅蘆溝橋에서의 衝突로 시작된것이다. 事變當初에 있어서는 大體로 局地的解決을 主眼으로 하였섯으나 漸次로 事變이 擴大되어 內地로부터 派兵을 要하게까지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된것은 現地에서 어떠한 通貨를 使用하여 軍費支拂을 할가가 問題이엿섯다. 支那에 있어서의 通貨가 法幣인것은 再言을 要치안는바이다. 法幣로서 軍費를 支拂하게 된다면 外貨(英又는弗)를 갖어서 法幣를 購入치안흐면 안된다. 이러한일은 外貨를 充分히 所有하고있다고할지라도 困難한 것이다. 더구나 支那側은 事變發生과 同時에 爲替政策을 採用햇스므로 法幣의 購入은 매우 困難한것이며 法幣의 勢力을 不當하게 擴大시키는 原因이 된다.

軍票냐 圓紙幣냐

그래서 一部論者는 軍票를 使用하라고 말하고 또 他의 論者는 圓紙幣를 使用하라고 主張하였다. […]

滿鮮券의進出

[…]

蒙疆、聯銀創立

[…]

北支通貨統一

[…]

思惑資金貸出嚴戒

財務局에서貸出內容精密調査

下期十月까지近二割의增加

最近 金融業者의土地, 株式等 所謂思惑資金의貸出은 增加되어 不堅實한 貸出傾向이있슴에鑑하여 財務局에서는 業者의貸出內容을 一層嚴重히調査하고 思惑方面에의資金流出을 徹底的으로 防止키로되엿다 朝鮮內金融業者(無盡業을除함)의貸出傾向을보면 十三年中의 貸出의增加率은 八分七厘, 十四年上半期는 五分六厘인데對하여 十月까지의下半期는 一割九分八厘三毛의 增加率을示하여 이金額은 十三年中의 一億一千九百六十九萬圓 十四年上半期의 八千三百八十三萬圓에對하여 十月까지의下半期는 三億一千二十六萬圓으로 最近의 貸出弛緩을 如實히 말하고잇다

普銀內容充實

內地의地方銀行보다도優秀

經濟力의伸長을反映

近年에 잇서서의 朝鮮內普通銀行의 經營內容의 好轉은 躍進的인것이잇서 朝鮮內 特殊事情下에 弱體化되어잇는 從來와는 全혀一變하여 內地의地方銀行과 比較해도 遜色없는것이 確認되고잇는데 그原因은 左의諸點으로보인다

一、監督官廳의 嚴重한 監督이 잇는것 例컨대資金의 內容好轉에도 不拘코 當局의指導에 依하여 低配當甘受하고 內容의充實에 努力한것

二、弱小銀行이 漸次淘汰되어中央集中化되고 經營首腦者에練達之士가잇는것

三、朝鮮內經濟力의 膨脹에依하여 銀行取引에도 堅實한것이 增加한것

四、昭和八、九年以來 農耕地의 値上其他로 固定貸의回收가順調로되어 各行이모두 累期多額의償却을 敢行하고 社內蓄積도增加된것

等으로 從來貸出이 預金을超過하든것이 常態로되어잇던것이最近에는 預金으로써 貸出을하고도 餘力잇는實情에잇서 經營內容의好轉은 注目할現象이라한다

增配要望熾烈

漢銀만實現?

地場 乙種銀行의 下期業績은모두 預金增加에 依한 放資餘力을 느끼면서도 一般으로 資金運用이 順調하여 收益은 모두增加되고 잇다 그러므로 商銀、漢銀、東一의 三銀行株主間에서는 增配要望을하고잇서 各銀行當局으로서도 配當方針에 對하여考慮하고잇는데 目下形勢는 東一銀行은 前期一分增配를한直後이라到底히 今期에다시 一分增配는困難할것이다 商銀은右中가장業績이조코 預金貸出이모두 飛躍的增加를보이어 增配의可能性은만흐나結局 自重方針으로 配當을据置하여 利益을內部保留에 充當하는 堅實方針을取할것이다 그러고漢銀에서는 同行은 地場乙種銀行中조지二分의低配當으로 當然他銀行과의 關係上增配를行할立場에잇는데 問題는 同行의特融과의關係에잇서 이點에對하여 監督官廳이如何한 態度에나올는지不明이나 特融의 償還도大體 透視가스게된 今日結局 今期는 增配가實現될것으로보인다

朝鮮商議副會頭

田川氏로決定

來十四日에開催하는 朝鮮商工會議所臨時總會에있어서의 役員選任에對하여는 會頭는 이미人見朝鮮無煙炭社長이 就任키로內定되어있고 副會頭一名의 增員에對하여는 그後任에 田川京商會頭의兼任으로할는지 全然別個의人物을마지하여 專任으로할는지는 京城商工會議所議員間에右兼任制에相當한反對論이잇서 그歸趨가注目되고잇던바 六日에開催된 京城商工會議所役員會懇談會에 穗積殖產局長이 臨席하여 當局의方針을 여러가지로說明하고 諒解要求한結果 드디어 當局의方針에 順應키로하고 繼續하여 開催된議員總會에서 田川會頭의 朝鮮商議副會頭兼任의

朝鮮內砂糖移入

五%의增量을要望

需要量七十五萬擔

朝鮮內에 잇서서의 砂糖需給은明年度에 잇서서는 砂糖菓子類의移入이 不圓滑해질것을 생각하고 需要抑制를 考慮한最少限度의 要望이다 今年度의需要量은 七十五萬擔의 豫定이다

朝鮮內의不圓滑한 情勢에 鑑하여 昭和十五年度의 朝鮮內配給數量에對해서 內地糖廠日糖 明糖 台糖各社에 對하여 約五%가량의增量을 折衝하기로되엿다 이것

臺灣米는激增이나

移出港在米激減

前年同期의五分之一未滿!

겨우十七萬五千石

米倉調査＝十一月末現在朝鮮內主要移出地에있서의 民間所持在米高는 總計十七萬五千百四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여 五十萬七千二十六石을激減해서 僅五分之一에도達치못하는狀態이다

◀總計內容(單位石)

	本年	前年同期
正租	八六、二三	一三九、七八八
玄米	三九、九四二	一三二、五八三
白米	三、八三	七九、〇〇三
內地米	一二〇	二九、六〇〇
臺灣米	一一、六四七	一五
計	一七五、一四四	六八二、一七〇

各港別內容은如左하다

	本年	前年同期
釜山	九五、七七二	二七七、七三三
馬山	八、八五二	一二、〇五〇
麗水	一〇三	一〇、八四三
木浦	一、〇三二	八二、七八五
群山	一六、一九九	八六、一〇二
江景	一、〇〇〇	二一、二〇〇
仁川	四、六八七	三二、三七七
海州	一二、一四〇	五八、一三〇

米穀市場懇談會

農林局主催下에朝鮮米穀市場會社令의撤 […] 로 態度를一決하엿다

京春鐵道三回拂込

京春鐵道에서는 第三回拂込에對하여 考慮中이던바 殖銀과協議한結果 來年四月一日 一株에 十圓을 徵收키로 內定하고 手續中이다

商組聯評議員會

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七日午後一時부터 京城商議에서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左記의件에對하여 協議하엿다

一、聯合會强化에關한件 二、見本市及年末賣出廢止에 伴하여 이에對신할 事業에關한件 三、內地商工業視察報告의件

鮮銀券收縮

限外發行消滅

連日膨脹을 거듭하던 鮮銀券은 七日 總發行高를보면 三億九千一百九十七萬四千七百六十一圓으로 收縮되어 前日에比하여 二千五萬六百二十六圓의減少를보이엇는데 이로써 同社는二百萬圓拂込으로 된다한다

이엇다 따라서 一時一千餘萬圓이나되던 限外發行도 消滅되고 保證準備는 一億五千八百五十九萬六千五百十八圓이엇다

北朝鮮五商議

聯合會結成

元山 咸興 城津 淸津 羅津商議로써 結成된 北鮮商工會議所聯合會創立總會는來十二日午前十時元山商議에서開催키로되엇다

朝鮮米五萬石

北支에輸出

第一次로許可決定

北支方面에서의 朝鮮米의輸入要望은 前般부터 各關係方面에對하여 速히해달라는 督促을하고잇는것으로보아도 明確히推察되는데 總督府에서도 現地의實情에應하여 約五萬石을 第一次的으로 輸出許可하기로 決定하여 三菱、朝鮮糯米의손에依하여 仁川、海州、鎭南浦로부터近日中에 天津、靑島로向하여 積出할터이다

朝鮮海運業組合

海運統制에順應코저結成

近間實施될 朝鮮海運組合令의施行을본後 即時對應할수잇는體制를 確立하여둘 必要가 잇슬뿐아니라 目下急速히 整備되고잇는內地海運統制의 諸情勢에順應하는同時에 朝鮮의 大陸發展基地인 使命達成을 爲하여 近海航路에 從事하는 朝鮮在籍船主가集合하여 帝國의 海運國策에順應해서 朝鮮海運의 統一的運營을 圖하고 船舶運用效率增進、配船의調整、適正運賃에依한海上運輸의 圓滑等을 期하여써海運業의 健全한 發達을 圖코저 前부터 準備中이던바 六日午前十時부터 遞信事業會館에서 關係海運業者五十餘名이 參集하여 發起人總會를兼하여 官民懇談會를 開催하고 劈頭山田遞信局長으로부터 時局下의 海運의 重大使命及 이에 對應하여 取하고 잇는 內地海運統制의 實況과 今後의 朝鮮海運統制方策等에關해서 一時間餘에亘하여 說明한後 뒤이어各業者와 質疑應答이잇서 一意專心 朝鮮海運業組合結成에向하여 邁進할決意를 吐露하고 午餐後午後一時부터再開 創立總會를開催하고 組合規約의審議決定을한後에 左記로役員을選定하엿다

▲理事長 橡木幹雄 ▲常務理事 立石良雄、廣瀨博 ▲理事 齋藤久太郞、石塚峻、本田米市、高井春五郞 ▲監事 武富謙吉、澤山寅彥太、黑澤寬

自治統制方針

朝鮮海運業組合은 六日創立과 함께 劃期的인 新自治統制에着手키로되엿는바 그統制方針은 如左히組合內에各各 分科委員會를 設置하기로될터이다 即

一、運賃의標準率을 決定하는航路、船腹의 重要物資부터 決定하고漸次他에 미치게할것

二、優先的配船 政府의指示하는 重要物資에는 優先으로配船함을 第一次的으로 審議하고 航路別로 各各分科會를 設置하여 漸進的으로 强力統制에 들어가기로되엿다 組合事務所는 우선 朝郵빌딩內에 開設하기로되엿다

機械製作所八分配

朝鮮機械製作所에서는 十一月末日로써 當期決算案을 附議할터이더니 一月下旬京城에서 定時總會를 열고 附議하리라한다 配當은二分增配인八分配當으로內定

上海, 天津在留朝鮮人

大貿易會社計畫

對滿支貿易一元的統制會社를

貿易協會에서研究中

支那各地에在留하는朝鮮人은事變을契機로 朝鮮과支那貿易의發展을企圖코 各各 그振興方策을研究하고잇는데 上海에서는上海朝鮮人民團長 李申寧氏가 中心이되어 上海新亞興業株式會社(資本金百萬圓、五十萬圓拂込)天津에서는 貿易業者 崔瑾淳氏를中心으로 東亞產業株式會社(資本金二百萬圓、五十萬圓拂込)의新設을 計畫하고 目下 現地에서 設立準備를 急히하는 一方右兩社 代表는 過般來 入京하여 總督府外事部及商工課當局과 折衝中이다 當局에서는 現地에잇서서의 朝鮮人財產保護의 見地에서 特히此等計畫에 賛意를表하고 諒解를주고잇다 朝鮮貿易協會에서는當局의 方針에順應하여 此等對滿關支貿易의 一元的統制를 圖하고자 朝鮮中央貿易振興會社(假稱)를新設코지目下研究中이다

鐵道局方針順應이나

丸計强化코邁進

◇…高橋丸計新社長談

六日臨時總會에서 就任한 高橋丸計社長은 如左히 抱負를말한다

從內社內에 舊弊이잇서 咸興事件가튼 不祥事를 惹起하고 內外의信用을 失墜하엿스며 鐵道當局에도 걱정을 끼친것은 참으로 遺憾되는일이다 六日臨時總會에서 役員의陣容을 整備하고 丸計의運用을 一新케된것은 […] 일이다 計算機關 一元化問題는 買收合同等 諸說이잇는모양이나 나로서는지금 무엇이라 말할수 업고 鐵道局方針에 反抗은 할수업지만 當社의方針으로서는 會社를一層强化하여 業界를爲하여 倍前努力할 覺悟를 가지고잇다

丸計臨時總會

陣容整備更生

丸計臨時總會는 開催하고 定款을 一部改正(副社長制廢止、專務制로改正)을 可決하고 새로이 役員을 如左히決定하고 陣容을 一新하엿다

▲社長 高橋仁作 ▲專務 姜圭植 ▲取締役 足立成久 金重 金麟植 松隈六太郞 安用 善 黃淳昌 郭永榮 方龍淵 朱裕斷 韓雲正 栗和鎭三郞 川平若一 朴亨淑 兪東濬 朱鎬 申泰今 韓君碩 三浦勝八 源野定治 ▲監査役 朴東政 金鍾昌 木村熊莊 後藤榮

京春鐵道車輛準備

京春鐵道에서는 最近貨客의激增에鑑하여 車輛準備에 萬全을期코잇는데 于先鐵道局으로부터 까솔린車 一二輛의 貸與를바더運行中인바 이二輛은 結局拂下를

綿綿協定價

近日中에決定

年間約三十萬圓에 達하는 綿綿協定價格은 業者의 申請에依하여 總督府商工課에서 審査中으로 近日中決定發表를 보게될터인데 昨年市勢보다 若干低廉한것으로될 모양이다

鰮油協定價格

油肥聯에서申請

油肥聯에서는 七日殖產局에對하여 鰮油의協定價格을 申請하엿다

鎭南浦	六六、六八	二二〇、三〇	芝浦CF
元山	二二、三〇	二四、六八	
浦項	一〇〇〇	一〇、六七	

여왓는데 申請價格은 芝浦CF十四圓에서 運賃、稅代其他諸費用을 除하고 逆算한것이다

倫敦銀塊週報

【倫敦六日發商通】今週의 倫敦銀塊市場에關하여 著名한仲介商 와니엘몬트즈商會는 如左히말하고잇다

[…]

○山田朝鮮汽船社長死去＝【釜山電話商通】朝鮮汽船社長山田勝氏는 前부터 釜山府立病院에서病으로加療中이던바 六日午後五時三十分마침내逝去하엿다

朝鮮汽船增配?

[…]

寸鐵

▼…普通銀行의 內容充實로增配要望熾烈 ▼…業界不良化는 警戒하나 配當要望은熾烈 ▼…銀行中에는 投資對象에關해서 警戒하지안흐면 않될것이다 ▼…株式取引을 그反動이큰것이니 要注意 ▼…移出港在米激減、前年보다 五分一도못된다니 걱정 ▼…鐵鋼이라도 만히얼른輸入해야겟는데 準備가되어가는지 ▼…英國의 物資輸出禁止도 各國의 交涉으로 不拘코實施中 ▼…一方英國의 彈壓輸出運動은 一層의 影響을 바를 英國商品은 獨逸輸出에도 不通 ▼…英國에서는 殘餘五割五分을 어떠케 判斷할가가 큰問題

市場六感

◇…經濟市勢의 新段階에處하여 今後에잇서서는 重點主義로收할 方針이라하니 產業의跛行狀態가 深化될 形勢▲株와二 二流株와의 懸隔이 甚해도 優良株內容이 貧弱한 浮動會社株를買付하는것은 愼戒할일▲年末도 二旬을 넘게슴으로 市勢는 小浮動을 거듭하여 年末市勢에 對한期待조차 稀薄▲如何間에 大市勢는 바랄수업슬듯

今日의市勢 七日

株式

同調推移

前場少堅 / 揉合

今朝는 東新三高인 百四十五圓一 滿業八十一圓丁 鐘新三高인 百十八圓七에寄付된後 東新은 六圓丁까지買進되엇스나 其後는 頑强商狀을呈하다가 結局東新 百四十五圓四 鐘新百八十四圓二 鐘新百十八圓七에 大引

後場同調

後場은 各一高인 東新百四十五圓五 鐘新百十八圓八에 凡調等後同調裡에推移하엿다

株價의跛行

目下日米會談과 日蘇會談이 併立中인데 米國側에서는 日蘇接近을 極히警戒하고 萬若兩國이接近하면 一層對日態度를 硬化할 形勢이라하여 그推移는 微妙한것

現物閑散

現物은 依然刺載材料出現을 待望하고 市況은 至極閑散을 持續하고잇다 겨우小田急이 三十一圓五에서二圓 鐘實은 六十七圓五에서八圓 滿煙草가 七十四圓五 朝鮮鑛業이 十九圓五、六北鮮製紙가 五十八圓五가령을부르고잇섯다

商品

이잇고 一方英國의 濠洲同實物象捕實施로日英間에도 또한가지問題가생겻다 그러므로 此等問題가 좀더進展을보기前에는 安心買는할수업는터이어서 昨日後場에있어서는 東新이百四十四圓對定再落되더니 今朝는六圓丁의 高値도 反騰되는 小往來商狀을 거듭하고잇다. 勿論 現物實氣가 一巡되어 다시物色買가 給作된것은 滿鐵에도 安定을加하는것이나 今後에잇서서는 東新、鐘出을 商議를通하여 東鑛主義로 나가게되엇스므로 株價에도 優良株와 二、三流株와의懸隔、跛行이불顯著하게될모양이어서 惡性인불래가 波現되기前에는 株價의全般高를바랄수 업슬모양이엇다.

◇朝鮮內株式 今日現株市勢(正午調)

[illegible] price columns

▲東京國債

佛貨四分三八八、六〇 五分半三八八、〇〇 ▲米貨

今日財界七日

◆米穀(京城、公定價)

[…]

京城物價 七日

[…]

海外經濟 六日

銀行券 六日

[…]

金利 手形交換

[…]

鷄油粕麥粉

[…]

金銀價

[…]

對外爲替

[…]

正米

[…]

正租

[…]

雜穀

[…]

綿絲布

[…]

滿洲商況

[…]

綿花 / 綿布 / 生絲

[…]

株式 鍊定代引日步取組 / 朝取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大阪短期 / 大阪長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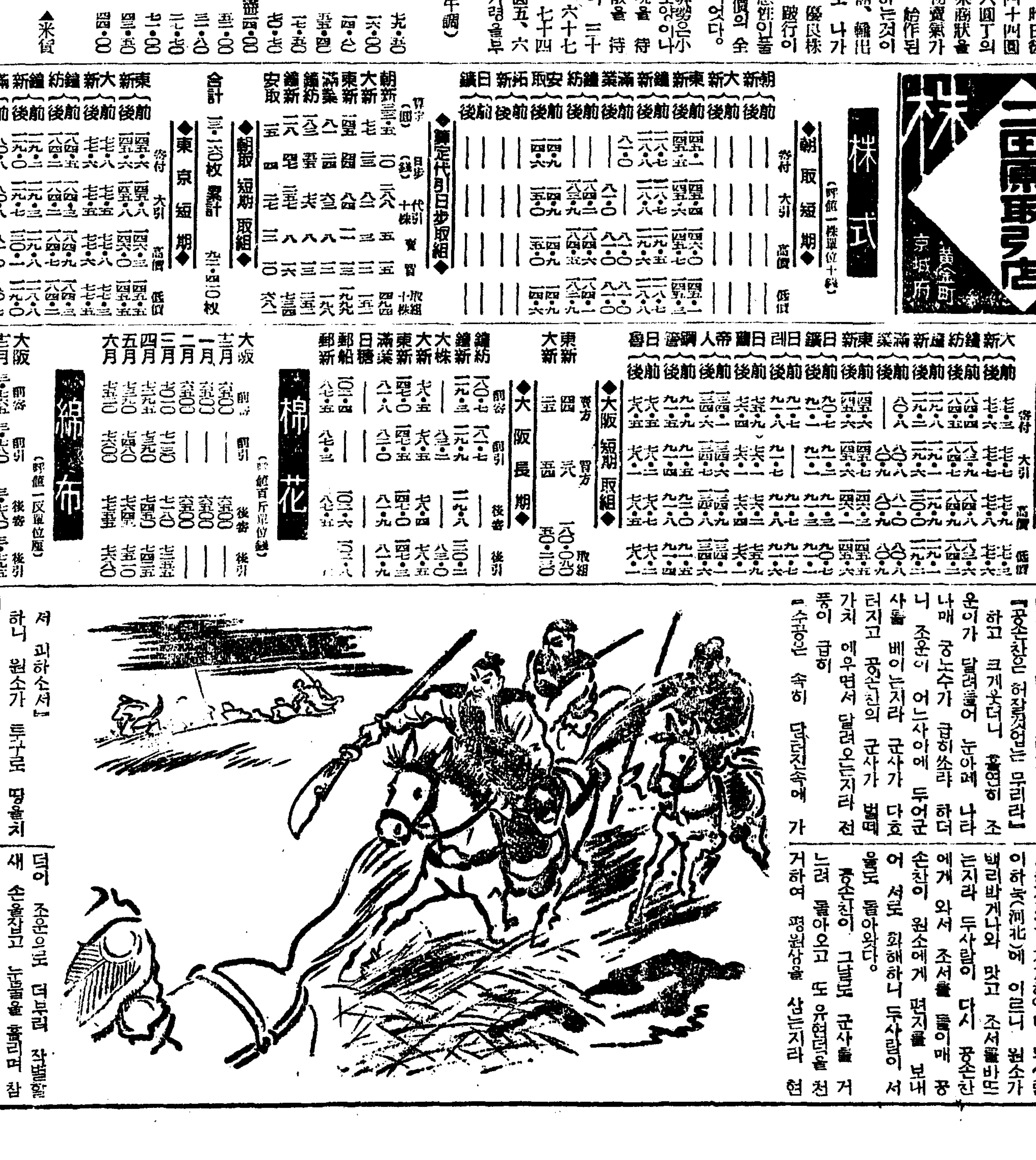
[…]

株式 三國商取引店 營業案內進呈 京城府黃金町

三國志 【36】

韓龍雲 譯 熊超 畫

群雄相爭 (三)



국의가 군사를이끌고 곳 공손찬을 쫓차가다가 조운에 이르러 정히 조운을 만난지라 조운이 창을 꼬고 말을달려 곳 국의에게 취하여 싸운지 수합이 못되어 창으로 국의를찔러 말아래에 내리치고 단기로 원소의군사에 몰어가 무인지경가치 좌충우돌하는지라 공손찬이 군사를 돌려치매 원소의군사가 크게패하엿다.

원소가 처음에 국의가 장수를 베이고 기를 꺾고 패한군사를 쫓차가는다는 기별을듯고 준비가 업시 다만 전풍(田豐)으로 더부러 창가진군사 수백인과 활가진군사가 수십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진에나서 보다가 「공손찬은 허잘것업는 무리라」 하고 크게웃더니 홀연히 조운이가 달려들어 눈아페 나매 궁노수가 급히쏘라 하더니 조운이 어느사이에 두어군사를 베이는지라 군사가 다호 러지고 공손찬의 군사가 범떼가치 에우면서 달려오는지라 전풍이 급히 「수공은 속히 담모진속에 가

[…]

혀덕이 심히 사랑하여 노흠마음이 업서 원소가 한번패하매 굿게지키고 나오지 안는지라 양편군사가 한달이 지나도록 서로 대하고 잇더니 어느사람이 장안에 가서 동탁에게 알린지라 이유가 동탁에게 말하되

「원소와 공손찬은 당금의 호걸이라 지금 반하에서 싸우고잇스니 천자의 조서를 비러서 사람을보내여 화해를 부치면 두사람이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여 반드시 수공을 조치리다」

동탁이 그말을조차 이튼날에 태부(太傅)외 태복(太僕)조기(趙歧)로 하여금 조서를가지고 가게하엿다 두사람이 하북(河北)에 이르니 원소가 백리바게나와 맛고 조서를바드는지라 두사람이 다시 공손찬에게 와서 조서를 돌이매 공손찬이 원소에게 편지를 보내어 서로 화해하니 두사람이 서울로 돌아왓다.

공손찬이 그날로 군사를 거느려 돌아오고 또 유현덕을 천거하여 평원상을 삼는지라 현

서 괴하소서」

하니 원소가 투구로 땅을치며 「대장부가 진에임하여 싸우다가 죽을지어늘 어찌 담에 들어가서 살기를 구하리오」 한데 여러군사가 마음을 가치하여 죽기로 싸우매 조운이 들어가지 못하더니 원소의군사 큰떼가 이르고 안량이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러서 양편으로치매 조운이 공손찬을 보호하여 에울을 뚤코 다리스가에 이르니 원소가 군사를 몰아 다시 다리를 지나매 물에 떨어져 죽는자가 수가업는지라 원소가 앞을서고 오리나 쫓차가더니 홀연히 등뒤에서 고함소리가 크게 일어나며 한떼인마가 내다르니 아페선 세장수는 유현덕 관운장 장익덕이라 현덕이 평원에 잇다가 공손찬이 원소로 더부러 싸우는 소식을 탐지하고 특별히와서 도음는것이엇다 세필말과 세가지 병장기가 일제히 달려들어 원소를취하니 원소가 놀래어서 혼백이 하늘박그로 날려가며 손에 잡엇던 칼이 재절로 땅에 떨어지는지라 황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니 여러사람이 죽도록 구원하여 다리를 지나가매 공손찬이도 군사를 거두어 진에돌아왓다.

현덕과 관, 장이 인사를 마치매 공손찬이

「만일 현덕이 멀리와서 구원함이 아니런들 낭패할번 하엿도다」

사례하고 조운과 서로뵈이니

덕이 조운으로 더부러 작별할새 손을잡고 눈물을 흘리며 참아 떠나지 못하는지라 조운이 탄식하되

「내가 저즘게 공손찬을 영웅으로 알엇더니 이제 하는바를보매 원소와가튼 무리라」

한데 현덕이 위로하되

「공이 아직 몸을굽혀 섬기면 서로 만날날이 잇다」

하고 눈물을 뿌리고 이별하엿다.

원술이 남양에잇스며 원소가 새로 기주를어더 듯고 사람을보내어 말 천필을 구하매 원소가 주지안는지라 원술이 노하여 이로부터 형제가 화목지 못하고 또 사람을 형주에 보내여 유표에게 양식이십만석을 청하매 유표가 또한 주지안는 지라 원술이 분히여겨 글월을 손견에게보내되

「전일에 유표가 공의 가는길을 막는것은 나의형 원소의 꾀라 이제원소가 유표로 더부러 상의하여 강동을 엄습하고자하니 공은 속히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치고 나는 공을 위하여 원소를치면 두원수를 갑흘것이오 공은 형주를 취하고 나는 기주를 취할지니 공은 결단코 그르치지마소서」

손견이 글월을보고

「못된 유표가 전일에 나의돌아가는길을 끈혓스니 이제기회를타서 한을씃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때를 기다리리오」

하고 정보 황개 한당등을 모아상의하엿다